

2025년도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미 시 의 회
전 문 위 원 실
[기 획 행 정 위 원 회]

목 차

I . 출장개요	1
II . 주요일정	2
III . 방문기관	
1. 장애인복지 사회통합 지원센터	3
2. 도시계획 전시관	10
3. 국립식물원	16
4. 가든스 바이 더 베이	19
5. 장애인 복지시설	22
6. 자미야 싱가포르	27
7. 클락키 수변광장	33
IV . 종합의견	38
V . 첨부서류(항공권)	41

I 출 장 개 요

- 기 간 : 2025. 8. 25.(월) ~ 8. 30.(토) / 4박6일
- 출장지역 : 싱가포르
- 출장목적 : 싱가포르의 선진 장애인복지 정책과 사회 통합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기관들의 운영 사례 및 지원 체계를 직접 관찰하여 구미시의 복지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며, 향후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출장자 : 총 8명(의원 5, 수행직원 3)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u>장애인복지 사회 통합 지원센터</u> 사례 조사 비교분석 및 시정 발전방향 연구·검토
2		의원	이명희	
3		의원	김근한	<u>도시계획 전시관, 국립식물원</u> 사례 조사 비교분석 및 시정 발전방향 연구·검토
4		의원	허민근	<u>장애인 복지시설(Bizlink Centre), 가든스 바이 더 베이</u> 사례 조사 비교분석 및 시정 발전방향 연구·검토
5		의원	김정도	<u>자미야 싱가포르, 클락키 수변광장</u> 사례 조사 비교분석 및 시정 발전방향 연구·검토
6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영훈	공무국외출장 지원(수행) 총괄
7		주무관	김근태	정책자료 수집·조사 및 현지기관 연락 및 일정 조율
8		주무관	김동현	정책자료 수집·조사, 항공·숙소 등 현장 진행 및 행정 실무 보조 사진 및 영상 기록

II

주요 일정

날짜	시간	일정	내용
8.25. (월)	08:00	구미시 ➡ 인천공항	
	14:45	인천 출발	비행시간 6시간10분
	19:55	싱가포르 도착	
8.26. (화)	10:00	장애인복지 사회 통합 지원센터 (Enabling Village)	장애인의 자립·고용·사회통합 지원 복합공간 운영 사례 확인
8.27. (수)	10:00	도시계획 전시관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싱가포르 도시계획 전시관을 통한 정주환경·데이터 기반 도시관리·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탐색
	15:00	국립식물원 (Singapore Botanic Gardens)	도시 속 생태교육·체험·원예활동 기반 시민참여형 문화서비스 구미 적용 아이디어 탐색
8.28. (목)	10:00	가든스 바이 더 베이 (Gardens By The Bay)	청소년 환경교육·생태 인프라·경관·관광 연계 정책 아이디어 탐색
	15:00	장애인 복지시설 (Bizlink Centre Singapore)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고용 연계 시스템 벤치마킹
8.29. (금)	10:00	자미야 싱가포르 (Jamiyah Singapore)	생애주기별 가족복지 통합 서비스 운영체계 분석
	15:00	클락키 수변광장 (Singapore Clarke Quay Waterfront)	벚꽃축제 연계 상설공간 조성·하천 정비·야간경관 연출 방안 수립
	20:00	싱가포르 공항 도착	
	22:30	싱가포르 출발	비행시간 6시간30분
8.30. (토)	06:00	인천 도착	
	07:00	인천공항 ➡ 구미시	

1. 장애인복지 사회 통합 지원센터 [작성자: 장미경 · 이명희 의원]

- **방문일시** : 2025. 8. 26.(화) 10:00
- **방문목적** : 싱가포르의 대표적 장애인 통합복지 센터 ‘인에이블링 빌리지(Enabling Village)’의 운영 사례를 통해 구미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통합적 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 **기관개요**
 - 설립연도 : 2015. 12월
 - 소재지 : 20 Lengkok Bahru, Singapore 159053
 - 연면적 : 약 30,000㎡
 - 운영주체 : 싱가포르 사회복지협의회(SG Enable)
 - 주요역할 : 단순 돌봄 중심이 아닌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교육·여가·건강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복합 커뮤니티 허브
- **기관특징**
 - 싱가포르 최초의 장애인 사회통합형 복합공간으로, 장애인의 교육, 고용, 재활, 여가가 모두 가능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설계된 이곳은 건물 전체가 무장애(Barrier-Free) 설계로 되어 있으며, 시각·청각·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보조장치와 안내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주요 공간으로는 직업훈련장, 카페, 체육시설, 커뮤니티 광장, 창업지원실, 보조공학 전시장(Tech Able), 다목적 강의실 등이 있으며, 모든 공간은 비장애인과 자연스러운 공존을 목표로 하고 개방형으로 설계됨.
 - 다양한 문화 행사, 시장, 교육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열리며, 이 모든 활동이 장애인 중심이면서도 지역사회와 통합된 운영 모델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응답

1. Enabling Village 건립에는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시설 운영은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되나요?

- 2015년 옛 부킷메라 직업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으며, 총 약 2,500만 싱가포르 달러(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와 민간 파트너(UOB, Singtel, ST Engineering 등)의 후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 운영비는 정부 지원금과 함께, 입주한 기업·기관의 파트너십, 후원금, 공간 임대 수익 등으로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UOB Ability Hub, Singtel Innovation Centre는 각각 기업이 직접 투자·후원하며, 지속적 유지비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 단순히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 입주(Art Faculty, 브라운 카페 등), 기업 협력, 커뮤니티 행사 대관 등을 통해 자생적 수익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장애인 고용 창출과 사회 인식 개선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2. 한국의 활동지원사 제도와 Enabling Village의 지원 서비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싱가포르의 Enabling Village는 개인 지원 인력을 파견하기보다는, 물리적 허브 공간 제공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보조기술 체험, 직업훈련, 고용 지원, 의료·교육·여가 시설)를 통합 제공합니다. 즉,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찾아와 자립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장소에 가깝습니다.
- * 반면 한국의 활동지원사 제도는 장애인 개인에게 돌봄·이동·가사 지원 인력을 배정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돕는 형태입니다. 국가가 직접 활동지원사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개인 단위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음.

3.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AT) 이용 시 또는 직업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Tech Able을 통한 AT 체험 · 상담은 무료입니다. 다만 기기 구매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Assistive Technology Fund(ATF)**라는 정부 보조금 제도를 통해 개인은 구매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SG Enable과 Autism Resource Centre 등이 협력하여 IT 교육, 고객 응대 훈련, 콜센터 운영, 소셜 마케팅,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Singtel Enabling Innovation Centre에서는 디지털 기술 기반 훈련을, ST Engineering Enabling Technology Centre에서는 AT 활용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기본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정부 · 기업 후원으로 무상 제공됩니다. 다만 특정 전문 교육 과정이나 자격증 과정은 일부 수강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는 보조금 · 장학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Enabling Village의 고용 지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싱가포르의 Enabling Village는 의무 고용제도보다는 인프라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 당사자가 직업훈련 · 기술교육 · 보조기술 활용 훈련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원합니다.
- 또는 기업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어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고용 연계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포용적 고용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둡니다.

* 반면 한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 기관은 법적으로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2024년 기준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함.

5.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Kindle Garden은 2016년에 문을 연 싱가포르 최초의 통합형 프리스쿨로,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과 일반 아동이 함께 배우고 자라는 유치원입니다. Enabling Village 안에 위치해 있으며, SG Enable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과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운영합니다.
- 모든 아동이 동일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되, 필요에 따라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함께 개입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언어·작업치료를 병행하면서도 또래 친구들과 공동 놀이와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일반 유치원과 동일한 놀이·언어·수리·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사회성 훈련, 감각·운동 활동, 특수교육 치료가 병행됩니다. 또래 아동과 함께하는 협동 놀이가 강조되어, 자연스럽게 포용적 환경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족 지원에도 중점을 둡니다. 부모 상담, 워크숍,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가정에서도 일관된 교육·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돌봄·양육 경험을 공유하도록 지원합니다.

○ 구미시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출처: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시설유형	시설종류	시설명	설치일자	입소정원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함께하는길	2010.05.14.	3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심터	2003.12.30.	3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수호공동생활가정	2013.02.01.	4
		다운공동생활가정	2017.10.19.	4
		밀알행복터	2025.01.03.	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000.11.07.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2002.04.01.	12
		참사랑주간보호센터	2005.11.30.	16
		구미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007.08.08.	20
		강동주간보호센터	2015.03.25.	20
		선산주간보호센터	2016.10.17.	16
		다봉주간보호센터	2017.11.29.	26
		형곡뇌병변 주간보호센터	2018.08.31.	12
		사곡주간보호센터	2019.07.17.	18
		장천주간보호센터	2020.04.24.	18
	장애인체육시설	구미시장장애인체육관	2013.12.13.	-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구미시시각장애인등 생활지원센터	2002.03.08.	-
	수어통역센터	경북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2000.12.30.	-
		구미수어통역센터	2008.01.29.	-

- 구미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며 주로 장애인 전용 공간 성격이 강한 반면, 싱가포르의 Enabling Village는 보조기술 센터, 직업훈련 공간, 유치원, 카페·정원 등을 아우르는 개방형 복합 커뮤니티 허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 공간 구조를 갖추고 있음

○ 구미시 적용 방안

- 관광·문화와 연계

-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마켓 등을 야외 공연과 축제와 함께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열린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복지공간을 단순한 ‘보호 시설’이 아닌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도시 재생과 복지 융합

- Enabling Village는 옛 직업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복지 허브로 재탄생함. 노후 공공건물, 폐교, 유휴 공간을 재생하여 장애인·노인·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복지 공간으로 전환 가능성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노력

- 신체 장애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로 인한 다양한 일상적 어려움이 있는데, 창의적인 도구 제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신선하였음. 예를 들어, 장애인의 보조지팡이에 빨래집게를 함께 달아 지팡이가 넘어지지 않게 지팡이를 개선하는 등 시설 자체적으로 도구 제작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으며, 이를 구미시 장애인 시설에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Enabling Village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혁신적 복합 커뮤니티 모델임을 확인함. 보호에만 치중한 단순 돌봄이나 복지 제공을 넘어, 생활기술 지원, 직업훈련, 고용 연계, 통합 교육, 사회적 기업 활동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구미시에서도 장애인의 자율성과 역량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단순 보호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술 활용, 사회적 기업 활동을 확대해 장애인에게 책임과 역할을 갖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Enabling Village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 통합형 복지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문사진



2. 도시계획 전시관

[작성자: 김근한 의원]

- **방문일시** : 2025. 8. 27.(수) 10:00
- **방문목적** : 싱가포르 도시계획 전시관을 통해 도시개발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는 운영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대형 도시 모형과 체험형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형 정책 홍보 방안을 구미시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 **기관개요**
 - 개관연도 : 1999. 1. 27.
 - 소 재 지 : 45 Maxwell Road, The URA Centre, Singapore 069118
 - 운영주체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 연 면 적 : 약 2,400m²
 - 층 수 : 3층 (1~3층)
 - 이용시간 : 월~토 오전 9시 ~ 오후 5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기관특징**
 - 싱가포르 도시계획 전시관은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과 미래 비전을 시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도시계획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시와 건축에 대한 전문적 이해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장치와 인터랙티브 전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모형 전시, 디지털 시뮬레이션,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교통체계, 녹지와 수변 관리 등 실제 정책과 연결된 도시계획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 질의응답

1. 도시재개발청은 국가의 도시계획과 토지 이용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인데, 굳이 전시관을 직접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계획은 시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URA는 정책 수립과 집행뿐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과 시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책무로 보고 있음. 전시관은 이를 위한 시민 참여와 정책 홍보의 창구로 기능하며,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보고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했습니다.
- 도시계획은 시각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고층 건물 신축, 교통망 확충, 녹지 축적 등은 문서보다 도시 모형·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줄 때 이해도가 높습니다. 전시관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책을 ‘체험’하게 하는 장치인데 예를 들어, 대형 도시 모형은 단순 전시물이 아니라 정책 협의·투자자 설명회·시민 공청회에도 실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전시관은 URA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실질적 정책 도구입니다.

2.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 전시관은 단순 관람형 공간이 아니라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시 후에는 디지털 설문과 오프라인 의견 수렴 공간을 운영하며, 주요 기획 전시 기간에는 전문가·주민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병행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보존 건축물 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보존 문제와 관련해 전시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고, 그 결과 보존 범위와 건물 활용 방안이 조정됐습니다.

3. 싱가포르에서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주택을 마련할 때 어떤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은 BTO(Build-To-Order) 공공주택 분양에서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층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의 상당 비율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는 부모와 근거리 거주를 선택할 경우 추가 우대 포인트를 받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최근에는 35세 이상 청년도 HDB¹⁾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임대와 달리 HDB 임대는 장기 안정성이 보장되며,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청년층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이 전체 주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신혼부부 우선 배정 정책은 젊은 층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큰 기여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약 80%가 첫 주택으로 HDB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과 가족 형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4.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단지에 민족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 1989년 도입된 민족 통합 정책은 HDB 아파트 단지마다 중국계 · 말레이계 · 인도/기타계의 입주 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민족이 과도하게 몰려 사는 것을 막아 사회적 통합과 조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 예를 들어, 한 블록이나 프리싱트(동 단위)에 중국계가 이미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면, 추가로 중국계 가구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영주권자 할당제가 있는데 이는 외국인과 영주권자가 특정 블록이나 프리싱트에서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민 · 영주권자 비율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공공주택이 ‘국민 주거 안정의 기반’ 역할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 : 국가 주도 공공주택 공급기관이며,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아파트를 의미하기도 함.

5. 구미시는 산업도시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이 과제인데 URA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URA는 단순히 주택과 상업개발만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토지이용 · 산업 · 상업 · 주거 균형을 총괄합니다.
- 싱가포르의 노후 공업단지를 집적형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전환함. 예를 들어 주룽(Jurong) 지역은 전통 제조업에서 R&D · 스타트업 · 스마트 물류를 결합한 복합 단지로 재편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도로, 통신망), 에너지 효율 설비, 공용 연구공간까지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 현재는 URA와 주룽타운공사가 공동으로 계획 ·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 유치에 위해 단계별로 부지를 공급하며, 공공이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민간이 R&D ·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지멘스, HP, 롤스로이스 등)이 입주해 첨단제조 허브로 성장 중입니다.

○ 구미시 적용 방안

- 공공전시 및 시민참여 플랫폼 : URA는 싱가포르 도시계획 전시관을 운영하며, 도시개발 비전과 전략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실제로 건축을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도시 실정에 맞는 건축 계획을 설정해 가는 플랫폼 및 공간 운영은 우리시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오히려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전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각종 모형들로 본인의 주거지는 맞춤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녹지와 문화시설이 풍부한 동네, 야간에 조용한 동네 등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개인이 원하는 구역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큼. 이러한 점은 도시계획자와 시민 모두에게 상호 윈-윈(win-win)이 되는 구조라 할 수 있음. 구미시 또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인구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천과 도심 연계 재생 : 싱가포르 강과 칼랑 강을 정화하고, 수변을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바꾸며 문화와 상업을 결합한 사례를 참고하여 낙동강 또는 금오천에도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수변 문화·관광 자원, 야간 경관 조명, 커뮤니티 이벤트 공간을 함께 구축하여 금오천이 도심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핵심 생활·문화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재생 모델 : URA는 주룽 산업단지를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교육, 주거가 결합된 주룽 혁신지구(JID)로 재편한 사례를 참고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 성장산업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구상도 필요함.

○ 시사점

- URA는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며, 주택·산업·교통·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체계적으로 이끌어왔음.
- 구미시 역시 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시 공간을 단순히 확장하거나 보수하는 차원을 넘어 산업·환경·시민 생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 특히 주요 현안은 URA처럼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도시계획과 함께, 수질 관리와 녹지 관리에 대하여도 인상적인 부분을 접할 수 있었음. 단 한 방울의 빗물도 그냥 흘러 보내지 않겠다는 기조로 상하수도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옥상정원과 건물 내부 정원을 조성하도록 국가에서 유도하여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 시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임.
- “우리 BTO 신청하러 갈래?”는 싱가포르 주택공사(HDB)의 분양형 공공아파트(BTO: Build-To-Order)를 신청하자는 의미이며 젊은 이들 사이의 프로포즈의 멘트로, 신혼부부가 큰 걱정없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구미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점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임대아파트 설치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URA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가능하며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혁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방문사진



3. 국립식물원

[작성자: 김근한 의원]

- **방문일시** : 2025. 8. 27.(수) 15:00
- **방문목적** : 시민 참여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 체계를 학습하고, 이를 구미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시설개요

- 개관연도 : 1859년
- 소 재 지 : 1 Cluny Road, Singapore 259569
- 운영주체 : 싱가포르 국립공원청(National Parks Board)
- 규 모 : 약 82헥타르(ha), 10,000여 종 이상의 식물 보유

○ 특 징

-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으로, 1859년 개원 이후 1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가적 상징성과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단순히 식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학생 및 어린이 대상 자연체험, 식물과 생태계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형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구미시 적용방안

- 생태교육 및 체험 학습 : 아동·청소년 대상 생태체험 프로그램, 가족 단위 생태 체험, 성인을 위한 원예·테라리움 만들기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구미과학관, 탄소제로교육관, 평생학습원,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해 공원·정원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교육과정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적 약자 배려형 인프라 조성 : 무장애 보행로와 장애인·어르신·아동 친화적 무계단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구미시에도 반영하여 낙동강 체육공원, 동락공원 등에 다양한 연령층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국립식물원은 16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단순한 식물 전시 공간이 아니라, 입장료가 없어 직장인의 출퇴근 통로이자, 요가 모임의 장소이며, 조깅길이기도 하였음. 식물원 내에 카페도 있어 시민 모두의 쉼터이자, 식물학자들의 연구소이기도 하였음. 식물원을 정책·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구미시는 산업도시라는 기반 위에서, 공원·정원을 단순한 조경 시설 차원이 아니라 환경 보전, 시민 교육, 문화 향유, 관광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간을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공간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립식물원의 사례를 통해 녹지 공간이 단순한 환경 자원이 아닌 정책·재정·교육·복지 전반과 연결된 통합 행정 자원임을 인식하고, 정책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고민하여야 함.

○ 방문사진



4.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작성자: 허민근 의원]

○ **방문일시** : 2025. 8. 28.(목) 10:00

○ **방문목적** : 대표적 친환경 도시정원 프로젝트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조성 및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시 환경 개선과 생태 보전뿐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시설개요**

- 개관연도 : 2012년
- 소 재 지 : 18 Marina Gardens Drive, Singapore
- 운영주체 : 싱가포르 국립공원청(National Parks Board)
- 규 모 : 약 101헥타르

○ **특 징**

- 2012년 개원 이후 첨단 기술과 친환경 설계를 기반으로 조성된 세계적 수준의 정원으로, 현지 기후에 적합한 다양한 식물 전시와 독창적인 경관 디자인을 통해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함.
- 대형 돔형 온실은 세계 각지의 식물과 생태계를 재현하여 방문객들에게 생동감 있는 자연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과 빗물 재활용·수냉식 공조시설 등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멋진 경관 제공과 친환경적 시설 유지를 동시에 구현함.
- 이번 방문 시 헐리웃 영화 ‘쥬라기공원’ 과의 협업을 통해 공룡 모형과 식물 전시를 접목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흥미롭고 교육적인 체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이처럼 대중적 콘텐츠와 자연·환경을 연결한 전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흥미를 높이고, 공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복합 문화·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 구미시 적용방안

- 계절별 · 테마형 정원 조성 : 다양한 기후대와 테마를 가진 전시 정원을 운영하는 사례를 활용해, 구미시도 금오산, 동락공원, 낙동강 체육공원 등을 기반으로 계절별 꽃축제, 지역 상징 식물정원, 산업 · 역사 스토리텔링 정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원 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 · 관광 결합형 프로그램 개발 : 유라기공원과 협업 전시 등 대중적 콘텐츠를 결합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구미시 역시 지역 산업 · 역사 · 문화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축제,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원 · 정원을 복합 문화 ·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여야 함.

○ 시사점

-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첨단 기술과 환경 친화적 설계를 통해 조성된 세계적 명소로, 싱가포르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환경 · 문화 · 교육의 복합 공간을 제공하여, 단순한 공원 개념을 넘어 국가적 정체성과 경쟁력을 상징하는 시설임.
- 단순히 나무와 꽃을 감상하는 식물원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음. 체험형 전시,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 휴식과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 운영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구미시 역시 녹지 공간을 환경 보전과 시민 복지, 문화 · 관광의 융합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방문사진



5. 장애인 복지시설(Bizlink Centre)

[작성자: 허민근 의원]

○ **방문일시** : 2025. 8. 28.(목) 15:00

○ **방문목적** :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 연계 전문 기관 운영 모델을 분석하여 구미시 장애인 일자리 연계 정책 개선에 반영

○ **기관개요**

- 개관연도 : 1998. 2월
- 소 재 지 : Blk 512 Chai Chee Lane, #01-09
- 운영주체 : Bizlink Association
- 주요 역할 : 직업 중심 장애인 자립 지원기관으로, ‘워크페어(welfare+work)’를 핵심 가치로 운영함. 발달·지체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업체 파견 등 다양한 고용 프로그램을 제공

○ **기관특징**

- 비거주형 직업재활·훈련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 각자에게 작업 공간 또는 직무 훈련용 개인 좌석이 배정됨. 작업환경은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 조정되며, 특히 지체장애인용 저상 책상, 시각장애인용 안내 표시, 분리형 작업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자기 주도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실내 환경을 제공
- 또한, ICT 기반의 훈련 시스템이 일부 도입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 대상 시각적 안내자료, 반복학습 키트 등 장애유형별 맞춤 교육 환경도 구비
- 직업상담사, 직무훈련 교사, 작업치료사, 심리상담사, 직업재활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개인별 직업 능력과 희망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 구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출처: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시설유형	시설명	사업비	운영주체	설치일자	정원/현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구미직업 재활센터	640백만원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2010.12.28.	35/33
	하랑직업 재활센터	294백만원	하랑 사회적협동조합	2020.11.26.	15/10

○ 질의응답

1. Bizlink Centre에서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판매 거래처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 장애인 근로자가 생산한 공예품, 생활용품, 인쇄·포장 서비스, 단순 조립 업무 등 다양한 상품과 용역을 판매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지역 네트워크, 기업의 사회공헌 연계,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판매처를 확보하여 관공서, 지역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납품하며, 일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판매합니다.

2. Bizlink Centre의 운영비는 어떤 재원으로 구성되며 어떻게 편성·집행되나요?

- 운영비는 연간 약 800만달러 정도이며, 크게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자체 수익사업(생산품 판매, 용역 서비스 등) ▲후원금 및 기부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연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 항목별로 관리합니다.
- 매년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예산안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집행 시에는 지출 결의서 작성 및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며, 지자체 보조금은 정산 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3. Bizlink Centre의 조직 형태가 어떤 것인지, 싱가포르에 이러한 기관이 많은지?

- Bizlink Centre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NGO)입니다. 싱가포르 사회복지협의회(NCSS: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에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연계를 지원하는 특화된 NGO로 운영됩니다.
- 싱가포르에는 약 500여 개 이상의 사회복지기관(SSAs)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장애인 고용·재활을 지원하는 기관은 20~30개 정도로 다수 존재합니다.

4.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물에 대해 품질 관리와 함께 휴먼에러(human error)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예방·대처하는지?

- 휴먼에러 예방을 위해 작업 흐름을 세분화해 훈련하고 CCTV와 접근 통제 시스템을 활용해 작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업물을 픽업하면서 한 번, 품질관리자가(Quality Control) 두 번, 마지막에 슈퍼바이저가 최종 확인하여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5. 부모님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지?

- Bizlink Centre는 Caregiver Support Programme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자립 역량 강화, 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워크숍이나 대화의 장을 제공하면서, 간접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재활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직업적 고용은 보호자의 신뢰와 이해가 필수입니다. 보호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 여정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고, 이는 전체 프로그램의 성공률과 정착률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구미시 적용방안

- 보호자 케어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도입 : 장애인 복지의 성과는 보호자의 돌봄 역량 및 정서적 안정과 직결되므로, 구미시도 케어기버 교육·상담 프로그램, 가족 휴식 서비스, 보호자 자조모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이 직업재활 과정에 파트너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다양한 직업재활 옵션 제공 및 재가 기반 지원 강화 : 기존의 시설 중심 직업재활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의 역량과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장애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원격 근로 지원, 지역 기업과의 연계형 재택 고용 모델을 강화하고, 필요 시 보호작업장 및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시사점

- Bizlink Centre는 장애인이 직업훈련과 고용 기회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형 직업 재활기관임. 단순 기관을 넘어 하나의 기업체처럼 운영되고 있었으며, 장애인들은 평범한 직장인처럼 출퇴근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보고 소통을 하며, 급여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었음.
- 또한, 단순한 보호나 지원을 넘어 고용 시장과의 연계, 사회적 기업 활동, 보호자 케어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 시스템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줌.
- 구미시 역시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보호자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개별 장애인의 역량과 욕구를 반영하여 자립성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방문사진



6. 자미야 싱가포르

[작성자: 김정도 의원]

○ **방문일시** : 2025. 8. 29.(금) 10:00

○ **방문목적** : 무료 급식, 아동·노인 돌봄, 재활 프로그램,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 포괄적인 사회복지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다문화 사회에서 운영되는 포용적 복지 체계의 특성을 파악하여 구미시 복지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관개요

- 개관연도 : 2024. 1월
- 소재지 : Blk 106 Jalan Bukit Merah
- 운영주체 : Jamiyah Singapore * 1932년에 설립된 이슬람계 사회복지 단체
- 기능 : 푸드뱅크, 지역사회 통합 지원

○ 기관특징

- 기본 생활 지원
 - 식료품 중 본인이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선택형 푸드뱅크 운영 * 음식은 대부분 교회 또는 주민으로부터 지원받음.
 - 식료품뿐 아니라 가정용품, 위생용품 등 일상에서 꼭 필요한 물품 지원과 중고 가구 및 가전제품을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건강 상담 및 연계
 - 지역 클리닉, 보건소와 협력해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상담을 연결.
 - 외로움·우울증·가정 문제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프로그램 제공.

-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

-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 가정 청소 서비스 운영.
-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수리·소규모 보수 활동을 지역 단체와 연계하여 지원.

- 교육 및 역량 강화

-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에게 방과후 학습, 학원 등록, 과외 활동을 연계하여 교육격차를 완화
- 이중언어 상담, 문화 적응 교육, 지역사회 연결 서비스

○ 구미시 푸드뱅크·푸드마켓 현황

[출처: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 푸드뱅크

- 이용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용기간 : 12개월(연장가능)
- 이용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 수급신청 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 제공사업장 : 구미푸드뱅크, 사랑나눔푸드뱅크, 선산푸드뱅크
- 내 용 : 생산·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한 여분의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제공

○ 푸드마켓

- 이용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용기간 : 12개월(연장가능)
- 이 용 액 : 가구당 2만원/월
- 이용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수급신청 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 제공사업장 : 구미푸드마켓
- 내 용 : 저소득층이 마켓을 방문하여 기부식품(생활용품) 및 구입 물품을 선택

○ 질의응답

1. 제공하는 식료품이나 생필품은 무료인가요, 아니면 일정 가격이 있나요?

- 수혜자 등록을 통해 가구당 월별 1인당 50불(약 6만원) 지원 한도가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고,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요자에게 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6개월마다 진열되는 상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2.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가정은 직접 시설에 와야 하나요?

-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이 어려운 가구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월 1~2회 정기 배달이 이뤄지며, 긴급 상황(예: 입원,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는 요청을 통해 추가 배달도 가능합니다.

3. 현재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책이 있나요?

- 익스피디아(Expedia)와 연계하여 트래블 페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계층을 위해 특정 여행지에 실제로 간 것처럼 환경을 조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 최근에 인근 건물에 큰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용하던 장소를 제공하여 저녁에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 * 구미시의 장난감도서관 사례를 자미야측에 소개하였는데, 자미야 측은 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흥미로운 모델이라 평가하였으며, 향후 푸드뱅크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아동 발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함.

4. 자미야 싱가포르의 주요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되나요?

- 재원은 크게 ①정부 보조금, ②기업 후원, ③개인·종교 단체 기부, ④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일부 특정 프로그램에 한정되며, 전체 예산의 대부분은 민간 후원과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5. 자미야는 특정 종교 기반 기관인데,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어떻게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 처음 시작할 때는 특정 종교(이슬람)에 뿌리를 두었지만 현재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을 종교·인종과 관계없이 개방합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와 수혜자의 상당수가 비이슬람 교인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원을 받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동시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중산층 이상 지역민들의 기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정기적인 커뮤니티 이벤트, 공동 식사 프로그램, 생활기술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 내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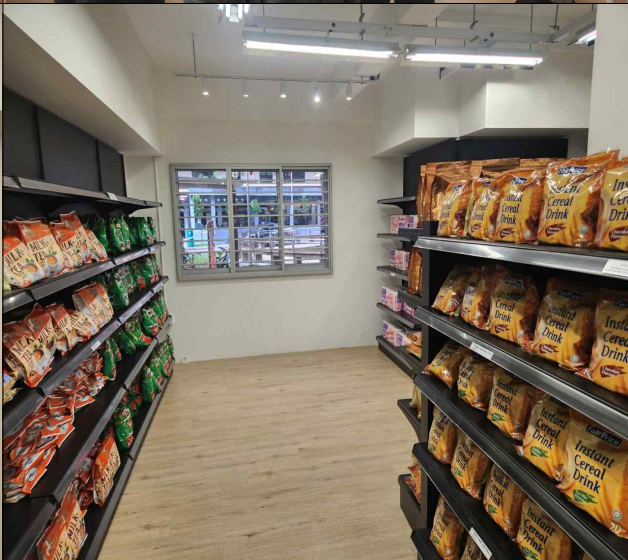
○ 구미시 적용방안

- 통합 가족지원 서비스 : 푸드뱅크에서 단순 물품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상담·교육·청소·중고 가구 연계까지 가족 전체의 생활 문제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
- 참여공동체 모델 :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민과 수혜자, 자원봉사자가 모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즉,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돕고 교류하며 공동체를 함께 유지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 시사점

- 자미야 싱가포르는 단순히 식료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 환경 개선, 중고 가구 연계, 학습 및 과외 지원, 청소 서비스, 건강·상담 프로그램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구미시의 복지 정책도 개별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복지와 새마을 활동의 협업도 검토하여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수혜자와 봉사자의 경계를 허물고 주민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자미야 싱가포르의 참여공동체 모델을 보고 복지를 단순히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기여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방문사진



7. 클락키 수변광장

[작성자: 김정도 의원]

○ **방문일시** : 2025. 8. 29.(금) 15:00

○ **방문목적** : 하천과 도심을 연계하여 문화·관광·상업이 어우러진 대표적 재생 사례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구미시도 수변 공간을 생활·문화 축으로 재편하여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 시설개요

- 개관연도 : 1993년 리모델링 오픈 (2003년 재개발)
- 소재지 : Riverside, Clarke Quay, Singapore
- 운영주체 : 민간 + 도시재개발청(URA) 협력 관리
- 규모 : 약 400m 구간(싱가포르 강변), 상업시설·레스토랑·문화공간

○ 특 징

- 클락키 수변광장은 싱가포르 강변을 보행자 중심의 친수 공간으로 재편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여가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특히 낮에는 휴식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밤에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잡음.
- 또한, 유람선과 수상택시를 통해 강을 중심으로 한 교통·관광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도심 속 수변 공간이 단순한 강변을 넘어 도시의 대표적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함.
- 공간 조성은 단순한 시설 개발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추진된 싱가포르 강 정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정화된 강을 기반으로 수변 문화·상업지구를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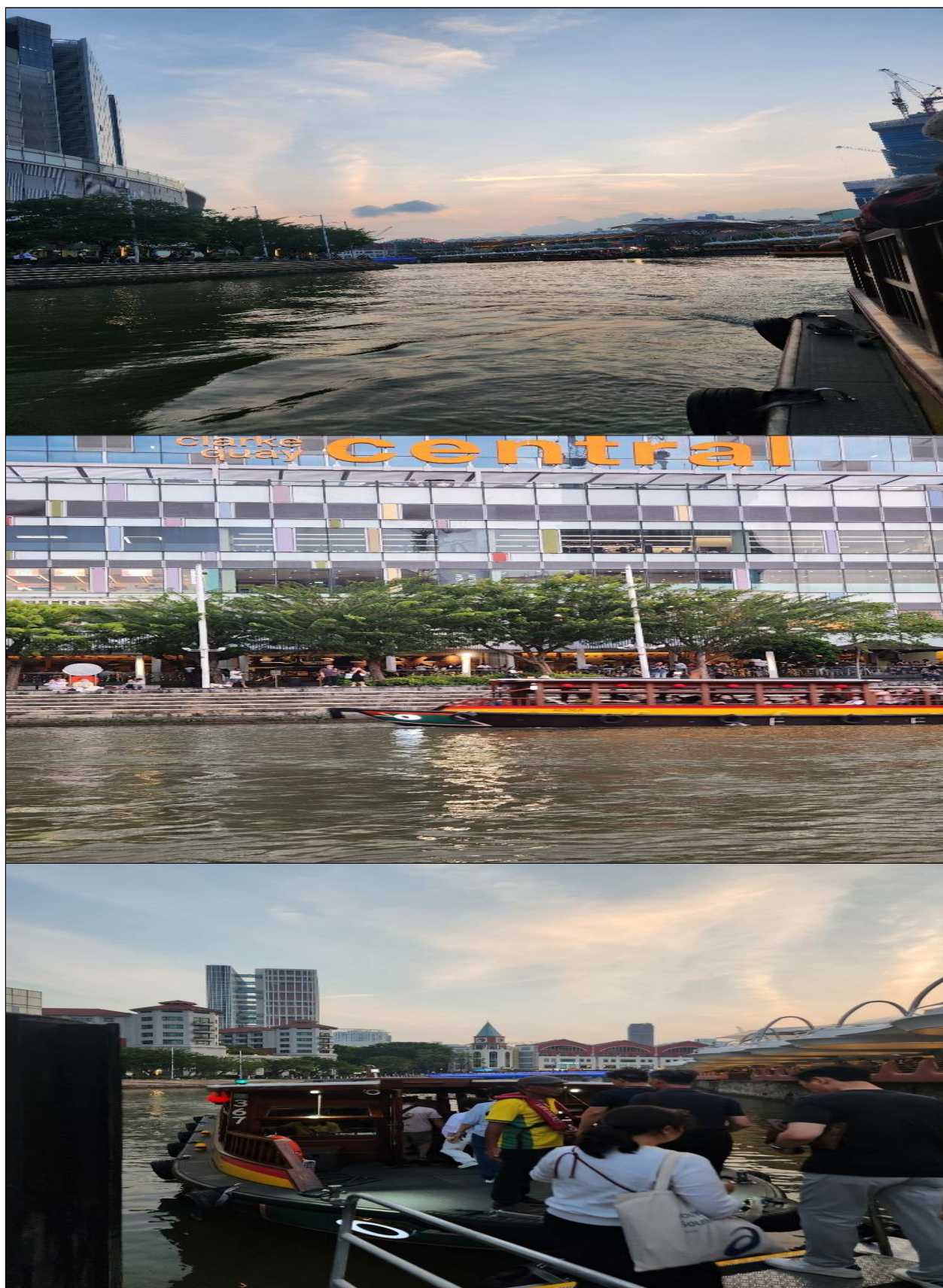
○ 구미시 적용방안

- 복합문화공간 조성 : 음식 · 문화 · 공연 · 상업시설을 결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변 문화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구축.
- 교통 · 관광 네트워크와 연계 : 클락키 수변광장이 유람선과 수상택시로 싱가포르 강 관광의 거점이 된 것처럼, 구미시도 낙동강 등을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관광 동선을 개발하여 수변공간을 도심과 관광지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 구상.

○ 시사점

- 클락키의 사례는 오염된 하천을 철저히 정화하고,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 · 재생하며, 문화 · 관광 · 상업 기능을 융합함으로써 수변공간이 도시의 대표적 문화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도시가 수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클락키 수변광장을 참고하여, 구미시에서도 낙동강 체육공원 강변과 낙동강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강변을 이용하여 야간경관 조명, 미디어 파사드, 야외 음악분수 설치, 강변 데크와 수상 카페 설치 등을 고려하고, 도심속 하천인 금오천에도 벽화거리, 조형물, 카페 테라스를 설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브랜드 제고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생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방문사진



○ 2025년도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싱가포르의 다양한 복지·고용·도시계획 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였고, 이를 구미시 정책에 적용할 가능성을 보았음.

○ 주요 성과 및 시사점으로,

- 통합복지 허브 모델의 유효성

인에이블링 빌리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서비스가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자립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줌. 또한 자미야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는 식료품, 가구, 청소, 상담, 교육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취약가구 지원의 실질성을 크게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구미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단순 물품 제공 서비스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 고용 중심의 자립 지원 체계

Bizlink Centre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업 파견, 품질관리까지 이어지는 연계 구조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음. 여기에 더해 보호자 케어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돌봄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와 정책 소통 인프라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이 운영하는 도시계획 전시관은 대형 모형, 시뮬레이션, 체험형 전시를 통해 복잡한 도시 정책을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실질적 도구로 작동하였음. 구미시 역시 주요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시·체험 기반의 정책 홍보 및 소통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간 재생과 복지·문화의 융합

인에이블링 빌리지가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방형 복합 커뮤니티 허브로 재탄생한 사례는 구미시에도 큰 참고가 됨. 폐교나 유휴 공간을 재생해 다기능 복지·문화 허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도시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와 개방형 동선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참여공동체(Participatory Community) 운영

자미야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듯, 수혜자와 봉사자의 경계를 허물고 주민 모두가 기여자이자 생산자로 참여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공동체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음.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구미시가 향후 복지 정책을 행정 주도형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이 될 것임.

○ 향후 추진 방향으로,

- 유희공간 리모델링형 시범 허브 구축

폐교나 노후 공공건물 가운데 1곳을 선정하여, 싱가포르 인에이블링 빌리지 사례를 참고한 개방형 복합 커뮤니티 허브로 시범 조성.

- 공공전시·체험형 플랫폼 구축

정책의 변화가 도시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 기업 파트너십 기반 고용

장애인 고용을 위해 관내 주력 산업인 전자, 부품, 물류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에 맞춘 직업훈련과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한 뒤 실제 고용으로 연계하는 단계적 경로를 구축.

- 푸드뱅크 고도화 및 원스톱 가족지원

기존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단순한 물품 제공 기능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원스톱 가족지원 체계로 고도화.

○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구미시가 해외의 선진적인 정책과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행정·복지·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음. 이러한 벤치마킹 경험을 토대로 구미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 부 서 류 (항공권)

- 41 -